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로닝A	00 KBS 뉴스광장	00 코로닝 대한민국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토크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MBC 9사 공동기획 <시대의 벽을 넘는 여성 제2부>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튜트생활체조	40 출발 드림팀 2(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행복도시 세종, 길을 묻다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55 월화 드라마 <힐러>(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뉴스 45 닥터 365 55 씨네 포트(재)
1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TV 아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00 염마의 탄생(재)	00 MBC 네트워크 특선 (소리 없는 전쟁, 배라) 55 꾸러기 식사교실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실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5 똑똑 키즈쿨 55 MBC 뉴스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KBS 뉴스 10 역사저널 그날	00 꼬마신랑 콩도령(재) 30 자동 공부책상 위기	05 헬로키티 플루말라 공동여행 55 내사랑 동	00 SBS 뉴스 1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4 00 정오관의 시사병법	00 시사진단 55 튜트 생활 체조(재)	00 TV유치원 콩다콩 30 두리둥실 공개공방2(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번신자동차 포커
5 00 하중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픽	00 외계가족 줄리폴리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8 20 독한인생 서민정부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힐러>	00 월화 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00 월화드라마 <펀치>
11 00 여변호사가 말한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청사 53주년 특집 다큐 CCTV공공제작 (기후의 변란 3부 난민)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모쿠드라마(싸인)(재) ①:20 먹거리 X파일(재)	20 T 타임 50 일약특특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해외특집드라마 (아틀란티스-항성의대파) ①:3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45 살맛 나는 세상 스페셜 ①:45 버비글-아우마의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 스페셜

“모래시계’ 장 수사관이 퇴직 앞둔 베테랑 됐죠”



‘오만과 편견’ 수사관 유대기 역 장형선

한 장면을 나와도 허투루 흘러가는 시간이 없다.대사도 필요 없다. 인생이, 관록이 묻은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30년 경력 베테랑 검찰 베테랑으로 이제 정년이 코앞인 유대기 계장은 배우 장형선(67·사진)을 만나 그렇게 입체감을 얻는다. MBC TV ‘오만과 편견’으로 2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장형선을 최근 인터뷰했다.

“존재감이 없어서...”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인터뷰를 사양했지만 장형선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10만 시간의 법칙’을 따른 듯한 베테랑 수사관의 모습을 강한 존재감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솔직히 기대한 것보다는 비중이 작아서 좀 아쉬워요. 하지만 어쨌든요. 이야기의 방향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대본이 너무 좋고, 연출을 하는 김진민 PD가 정말 좋아서 촬영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빵왕 김탁구’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꼭대본에, 대기 시간이 텅텅이 길어도 즐겁고 기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이 드라마를 안하려고 했다. 드라마 제목에도 있는 ‘편견’ 때문이었다.

“우리 아들 혁(배우 김혁)이가 김 PD랑 ‘무신’을 같이 했는데, 아 글썽 촬영장에서 연기자들에게 직설적으로 팍팍 내지른다는데 거예요. 저는 남이 나한테 그러면 나도 같이 ‘뽕뽕’대는 스타일이라 김 PD를 인연이 없겠다 싶었죠. 근데 어느날 만나달라는 연락이 온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나 보자 싶어 나갔는데 월경, 사람이 부리부리하고 너무 관심을 거라. 팍팍대는 것도 보니까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더라고요. (웃음) 촬영장에서 보면 모든 배우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연기 지도를 해요. 제가 돌아가신 김중학 PD님을 존경하는데, 김진민 PD도 젊은 친구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가 됐어요.”

때마침 김중학 PD 얘기가 나왔다. 장형선은 1995년 김 PD

연출의 ‘모래시계’에서도 검찰 수사관을 연기했다. 강우석(박상원) 검사를 모시는 행동과 수사관이었다. “김진민 PD도 ‘모래시계’의 장 수사관을 떠올리며 나를 캐스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수사관이 지금쯤이면 퇴직을 앞둔 베테랑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모래시계’ 때도 별로 역할이 크진 않았어요. 맨날 강우석 검사 졸출 좇아다녔지. (웃음) 그런데 그때 내가 땅콩을 까먹던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나 봐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땅콩을 책상에 뿌려놓고 손바닥으로 껍질을 비벼며 후후 불어 뿜어내며 씹어먹고 있는 했거든요. 재미있는 게 장운현 감독도 바로 그 모습이 좋았다고 그 후에 나를 영화 ‘텔미텔미’의 오형사로서 캐스팅했어요.”

장형선은 “얘기가 나왔으니 최민수 얘기를 좀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최민수랑은 1993년 ‘걸어서 하늘까지’ 때 처음 만나서 ‘모래시계’랑 ‘태왕사신기’를 같이 했어요. 그때는 최민수가 하늘에 있고 난 땅에 있어서 같은 작품을 해도 별반 어울리지 못했어요. (웃음) 그런데 이번엔 최민수를 다시 봤어요. ‘오만과 편견’에 젊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원래 좀 산만하고 방자한 습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민수가 그들과 장난도 치고 욕박도 지르면서 너무 잘 어울리는 거라. 애들이 다 따라요. 또 연기 지도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지적이 다 옳아요. 최민수가 아주 훌륭한 배우라는 것을 알게됐고, 다시 봤어요.”

그러던 ‘인간 발견의 재미’ 덕에 장형선은 집인 천안에서 서울을 오가는 촬영, 꼭대본에 기억없이 기다리는 날들의 연속 속에서도 “불평 없이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다”며 웃었다.

그는 또 “대본이 재미있다. 젊은 여성 작가인데 참 잘 쓰더라”며 “대사 하나, 장면 하나에 많은 의미가 있고 반전의 연속이라 시청자로서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70이 다 된 나이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하고 있으니 비중은 적어도 기쁘네요. 드라마가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아이유,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수 선정

‘너의 의미’ 리메이크 곡 ... ‘올해 최고의 가요’

올해 ‘너의 의미’, ‘나의 옛날 이야기’ 등의 리메이크곡을 발표해 청소년층과 중장년층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가수 아이유(사진)가 올해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은 10~11월 전국 만 13~59세 남녀 27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이유가 12.9%를 차지하며 ‘올해를 빛낸 최고의 가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이유는 지난 5월 발표한 ‘꽃갈피’ 앨범에서 산울림의 ‘너의 의미’,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등을 리메이크해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아이유는 지난해 조사에선 6위에 그쳤다.

2위는 이제는 ‘속녀’에 가까운 소녀시대(12.4%)가 차지했다. 소녀시대는 2009~2011년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가 지난해는 5위로 하락했다. 올해 ‘타치 마이 바디’(Touch My Body), ‘아이 스웨어’(I Swear) 등을 발표한 여성그룹 씨스타(10.8%)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씨스타의 멤버인 소유가 정기고와 부른 컬래버레이션(협업) 곡 ‘썸’은 올해 최고 히트곡 중 하나다.

지난해 ‘으르렁’에 이어 지난 5월 ‘중독’을 발표해 또다시 10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엑소(9.4%)가 작년에 이어 4위를 유지했다.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이선희(8.4%)는 중장년층과 젊



은층에서 고른 인기 분포도를 보이며 5위에 올랐다. 걸스데이(7.9%), 이승철(7.8%), 조용필(7.2%), 비스트(5.5%), 장운정(5.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최고의 가요’ 역시 아이유의 ‘너의 의미’(7.7%)가 차지했다. 2위는 씨스타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썸’(4.6%), 3위는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4.5%)로 조사됐다.

MBC ‘전설의 마녀’ 시청률 25% 돌파

MBC TV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사진)가 20일 시청률 25%를 돌파했다.

2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설의 마녀’는 전날 방송된 17회에서 전국 시청률 25.1%, 수도권 시청률 26.6%를 기록했다.

‘마미’의 바통을 이어 지난 10월25일 14.5%로 출발한 이 드라마는 매회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린 끝에 8회 만인 11월16일 20% 벽을 넘어서더니 다시 한달 만에 25% 벽도 깼다.

17회에서는 한국교도소 10년방 동거였던 영육(김수미 분)까지 출소해 주인공들이 사는 서촌세탁소를 찾아오는 내용이 그려졌다.

이날 같은 시간 방송된 SBS TV ‘미녀의 탄생’의 시청률은 6.1%에 머물렀다. ‘전설의 마녀’는 출생의 비밀과 음모, 복수 등 흔한 ‘막장’의 요소를 고루 갖춘 전형적인 통속극이다. 새로운 게 없는 구성이지만 ‘미녀의 탄생’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고, 배우들의 개성있는 연기가 어우러지면서 시청자들의 선택



을 받고 있다. 한편, 20일 방송된 다른 주말극의 시청률은 KBS 2TV ‘가족끼리 왜 이래’ 31.3%, MBC TV ‘장미빛 연인들’ 16.5%, SBS TV ‘모던파머’ 3.6%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부모광장)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리얼극장(여름나)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올리비아	20:40 다큐 오늘
07:00 코코몽(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피터 래빗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영 유치원(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중국한시기행6 창장 21부>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1:30 한국기행
08:00 당동영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굼디와 친구들(재)	<관동별곡 1부>
08:20 두다디콩(재)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뽀잉(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35 방귀대장 뽕뽀잉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2:45 달려주세요
08:50 굼디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30 꼬마버스 타요	23:35 세계 전문록 아틀라스
09:05 원더 볼츠(재)	14:10 스포츠웨어야 놀자	17:45 두다디콩	<히말라야 하늘길을 걷다>
09:20 출동 슈퍼원스(재)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24:05 지식채널e(재)
09:35 아기고릴라 동동	14:45 코코몽2	19:00 지파티어스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12:10 2016 수능개념(윤영주의 영어)
04:1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13:05 <윤정환의 영어>
07:50 <오광석의 수학 I>	14:00 고등예비과정
01:40 <오렌지의 영어>	<김소연의 수학 II>
02:30 수능길잡이<문학>	14:50 <주혜연의 영어>
03:20 <수학 I>	15:40 2016 수능열기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오렌지의 영어>
05:00 <영어특해 유형>	16:3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7:20 <오광석의 수학 I>
07:30 <차현우의 미적분 II>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9:20 <최은진의 수학 I>
09:10 <독서와 문법>	20:00 <김소연의 수학 II>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20:50 <주혜연의 영어>
10:50 <최은진의 수학 I>	21:50 수능길잡이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EBS플러스 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7:30 나의 성공비결	16:2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학교교육 드라마
08:30 검증고시대비 강좌	<어린이 중차별방>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I
09:10 중학예비과정 <국어①②>	18:00 중학예비과정 <수학 ③>
09:50 <국어③④>	18:40 <영어 ③>
10:30 <영어 ①>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1:10 <수학①>	20:00 EBS 기획특강
11:50 <국어⑤⑥>	20:50 EBS 기획리포트
12:30 <영어②>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10 <수학②>	22:00 중학예비과정 <국어 ①②>
13:30 중학 m포스 수학1	22:40 <국어③④>
14:30 중학 m포스 수학2	23:20 <수학 ①>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23:20 중학 e포스 영문법1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24:0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2일(음 11월 1일 丁卯)

子	36년생 문짓거리로 비화 될 수 있다. 48년생 실리를 우선하라. 60년생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나니라. 72년생 현재의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면 훌륭한 결과가 있겠다. 84년생 느긋하게 임해도 될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81, 06
丑	37년생 전황을 따랐을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 49년생 좀 더 지켜볼 일이다. 61년생 치밀하지 않으면 헛수고만 반복될 뿐이다. 73년생 꾸며져 있는 것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 85년생 차이를 감안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7, 74
寅	38년생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0년생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62년생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74년생 열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하리라. 행운의 숫자 : 65, 87
卯	39년생 도모하기 힘든 일이나 포기하는 것이 낫다. 51년생 전문적인 식견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63년생 자신에게 재량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는 일임을 알자. 75년생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5, 66
辰	40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52년생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곳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64년생 상대의 태도는 자신의 언행에 대한 거울임을 알라. 76년생 여차피 어긋나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84
巳	41년생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3년생 핵심 가치를 간파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65년생 합리적이야하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77년생 활동에 제약받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8, 21

午	42년생 한 동안 쉬었다가 다시 비슷한 국량으로 환원될 것이니라. 54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옳다. 66년생 출가분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더 나은 성과가 있다. 78년생 원만하게 진행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7, 85
未	43년생 길잡이가 나타날 것이니 함께 하라. 55년생 수습하여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67년생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79년생 구상은 좋으나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3, 89
申	44년생 잃었던 것을 찾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겠다. 56년생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68년생 확신이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80년생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리라. 행운의 숫자 : 90, 14
酉	45년생 본보기가 될 만한 방법이 따로 있느니라. 57년생 의외의 방해자가 보이므로 대비해야겠다. 69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1년생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곳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42
戌	46년생 남의 일에 끼여들면 괜한 시비 수에 휘말린다. 58년생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70년생 제반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82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패기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3, 51
亥	47년생 충동을 제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59년생 예견되는 대국은 사전에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71년생 극복 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83년생 베푸는 일이야말로 복 받는 법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56, 9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